자연하고도 그 속, 물고기를 벗삼아

이학영/한국자생어종연구협회 회장, www.koreafish.or.kr

어느 누구든 자연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나는 그리 길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인생의 많은 나날들을 자연과 더불어 그 속에 묻혀 지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물고기의 우아한 자태에 심취하여 전국의 방방곡곡 계곡과 시냇물, 소하천, 강, 호수, 수로 등을 답사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나라 전역을 다니다 보니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내 조국이 된 것을 항상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한시간이라도 더 발 닿지 못한 여러 지역을 찾아보고픈 욕심이 앞서게 됩니다. 한 때는 외국 여행도 호구지책의 수단으로 자주 가 보았습니다만 우리 나라처럼 아기자기하고 정겨운 곳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물고기를 찾아 국토를 종횡하며 탐어 여행을 떠날 때는 지금도 항상 마음 설레이고 즐거움으로 온 몸이 뿌듯해짐을 느낍니다.

우리 물고기는 우리 민족성과 그 생태와 습성 등에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 조상들과 같이 대대로 이 땅에 살아오면서 온유하고 담백하면서도 외유내강의 기질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나는 10수년 동안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한국자생어종연구협회라는 단체의 회장을 지금껏 자의반 타의반으로 맡아 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크게 알아주지도 않고 웬만한 후원금조차 들어오지도 않으며 오히려 해마다 개인 사비를 더 들이고 있지만 우리 물고기를 항시 지켜볼 수 있다는 기쁨 속에 이를 하늘이 내게 내려주신 천직으로 알고 늘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연구하는 우리 협회에는 우물기사모(우리 물고기를 기르는 사람들의 모임)라는 물고기 사랑 동우회가 있습니다.

여러 번 방송 등 매스미디어에 소개도 되었습니다. 주부, 청소년, 어린이, 직장인 등 남녀노소가 가족단위로 동참하여 채집을 하고 하천을 청소하는 등의 활동을 합니다. 늘 자연을 가까이 하는 그들의 모습이 매우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들에게 왜 하필 우리 물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냐고 물으면 열대어나 금붕어의 자극적인 원색보다는 수수한 색을 띠다가도 번식기가 되면 색색의 혼인빛으로 물들고 어항에서도 잘 적응하면서 싫증을 느끼게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물고기를 집에서 기르고 나서부터 아빠의 귀가 시간이 빨라졌다고 좋아하는 가족들이 있고 연로한 부모님들에게서 좋은 취미 생활을 갖게 해주어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는 가족도 있습니다. 우리 물고기가 가정에 웃음과 화목을 가져다 준 복덩이가 된 셈입니다.

이렇듯 우리 물고기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살지 않는 하천을 생각해보세요. 이는 더 이상 생명의 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소중한 삶이 있듯이 물고기에게도 귀한 삶이 있음을 인정해 주세요.

물고기든 야생화든 나무든 자연의 한 꼭지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가까이하고 지켜나가고자 노력하는 삶은 참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PPFK